

전기차 전환 느린 토요타 “순수 전기차만이 해법 아냐”

토요타·렉서스 전동화 아카데미
“탄소중립 중점... 많은 선택지 제공”
2035년까지 렉서스 전기차 100%
전고체 배터리 연구도 빠른 투자



기자가 시승한 토요타 ‘렉서스 뉴 제너레이션 NX’의 모습.

전동화 전환이 너무 느리다는 평을 받아온 토요타. 하지만 기자가 ‘토요타·렉서스 전동화 아카데미’에서 만난 토요타는 ‘전기차’가 아니라 ‘탄소중립’에 중점을 둔 기업이었다. 토요타에게는 전동화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선택지 중 하나였고 토요타는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었다.

지난 29일 한국토요타자동차 성수동 트레이닝센터에서 진행된 ‘토요타·렉서스 전동화 아카데미’에서는 토요타 본사의 전동화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이브리드(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전기차(BEV) 등을 두루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 이후에는 트레이닝센터를 출발해 용인시에 있는 ‘토요타 주말농부 텃밭’까지 시승을 진행했다.

토요타는 자동차 시장에서 순수 전기차 출시 부문만큼은 경쟁사 대비 다소 느리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순수 전기차’가 유일한 해법이 아니다’라는 기

조를 유지하고 있다. 토요타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 인프라 상황과 소비자 니즈를 고려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토요타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가령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 및 산유국에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친환경과 재생에너지가 주축인 국가에는 전동화 자동차로 시장을 공략한다. 토요타 관계자는 “실제로 노르웨이는 에너지 중 70%를 재생에너지로 소비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대종화한 나라”라며 “각국의 타이밍과 상



한국토요타자동차 성수동 트레이닝센터에서 토요타 전동화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기자들. /허정윤 기자

황에 맞춘 파워 트레인을 제공한다는 게 토요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토요타는 자동차의 미래 동향을 ‘전기차’나 ‘전동화 차량’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미래를 ‘대응의 영역’으로 두고, 쉽게 예측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토요타는 이를 위해 ‘TNGA(Toyota New Global Architecture)’ 플랫폼을 통해 각국의 요구사항에 맞춰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토요타 아키오 회장도 전동화에 진심인 모습이다. 그는 “2030년까지 총 30종의 토요타와 렉서스의 BEV 모델을 도입하고, 연간 350만대의 글로벌 BEV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렉서스는 2030년까지 전 라인업에 전기차 모델을 도입해 세계적으로 100만대를 판매하고 2035년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렉서스 차량의 100% 전기차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토요타는 세계 완성차 판매 1위에 만족하지 않고 7300억엔(7조9500억엔)을 투자해 일본과 미국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명가’라는 이름을 유지하면서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연구’에 큰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토요타 관계자는 “다양한 파워트레

인으로 고객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토요타와 파나소닉의 배터리 합작사인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솔루션의 히메지 공장과 도요타 공장에 총 4000억엔을 투자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는 3250억엔을 들여 배터리 공장을 새로 짓는다. 2024~2026년 양산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토요타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에도 발빠르게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자가 시승해본 ‘렉서스 뉴 제너레이션 NX’는 이전보다 한층 가벼워지면서도 강한 차체를 구현해냈다. 동시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렉서스의 주행 컨셉 ‘렉서스 드라이빙 시그니처’도 유지했다. NX 450h플러스에는 총 96개의 셀로 구성된 18.1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순수 전기 모드로 56km(복합 기준)를 달릴 수 있다. 32A 완속충전기로 충전 시 2시간 37분에 완전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엔진에서 배터리로 구동 형식을 전환할 때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며 에너지의 흐름을 모니터로 볼 수 있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S클래스급’ 편의성... 되찾은 럭셔리 명성

김재웅의 봄봄봄

메르세데스-벤츠 C300 AMG 라인
계기판·HUD...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최대토크도 40.8kg·m로 ‘폭발적’

메르세데스-벤츠. 지난 100년간 럭셔리 자동차를 상징했지만, 최근 몇년간은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자동차 업계 기술력이 상향평준화되며 특별함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유저 익스피리언스(MBXUX)는 벤츠가 하면 된다는 걸 보여줬다. 화려한 시각 효과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다양한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순식간에 다시 럭셔리 명성을 되찾았다.

MBUX의 최대 장점은 적용된 모든 차량 편의성을 S클래스급으로 높여준다는 것.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까지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로, 벤츠는 S

클래스에 적용한 기능을 A클래스까지 거의 모든 라인업으로 확대 적용한 상태다. C300 AMG 라인도 물론이다.

도로에 나서면 특별함이 바로 드러난다. 3D인덱스 가독성이 좋은 내비게이션은 순정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 신호를 받아 멈추면 자동으로 상황을 인식해 전방 카메라를 켜서 횡단보도 상황을 촬영해준다.

계기판이나 HUD도 직관적이다. 작은 화면 안에 RPM이나 속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작동 상황 등을 한번에 알려준다. AR 내비게이션도 벤츠가 자랑하는 시스템 중 하나, 정확하게 길 고를 가르쳐준다.

음성 인식 기능도 쓸모가 많다. “안녕 벤츠”로 호출해 다양한 명령을 시킬 수 있다. 미디어 재생은 물론, 창문이나 섀루프를 여닫는 것까지 가능하다. 아직 와이퍼를 동작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자율주행을 켜달라고 하니 지원하지 않는 차량이라고 하는 걸 보면 벤츠가 어디까

지 준비했는지 짐작할만 했다.

내부 공간은 생각보다 넓다. C클래스긴 하지만 2열에도 꽤나 편하게 앉을 수 있을만한 레그룸이 확보된다. 휠베이스가 이전 모델보다 25mm나 늘어났다고 한다.

주행 성능은 굳이 구구절절 말하는 게 벤츠에 실려야 할까. 48V 마일드하이브리드를 적용해 공인 연비가 11.8km/L인데, 최대토크도 40.8kg·m로 폭발적이다. 2000cc 가솔린 엔진 맞다. 주행모드가 에코부터 스포츠까지 갖긴 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었다. 변속 타이밍이 달라 높은 출력에 9단 변속기까지 맞물리니 그냥 고성능 느낌을 즐길 수 있었다.

이런 성능에 가격도 6800만원이 아니라 그냥 만족할만도 하지만, 벤츠가 IT 회사가 아니라는 걸 잊지 않게 하는 이상한 일이 있기는 했다. 강변북로를 달리는 데 자꾸 속도제한이 40으로 인식됐던 것. 80km/h 속도 제한 표지판이 계속 나오는데도 자꾸 40km/h를 제시했다. ‘안녕



메르세데스-벤츠 C300 AMG 라인. /메르세데스-벤츠



실내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운 벤츠 그대로다.

벤츠’도 사실 잘 알아듣지를 못했다. 그래도 다른 전자 기능은 완벽했다. 어시스턴트 기능은 보조에 중점을 두고 크게 개입하지는 않지만, 커브길이나

급 차량이 끼어들 때에는 확실하게 제어를 해줬다. 저속에서 작동할 수 있어 정체 구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김재웅 기자 juk@

LG전자, 북미에 ‘97형 올레드’ 첫 공개

‘CEDIA 엑스포 2022’ 참가

LG전자가 북미 시장에 세계 최대 올레드 TV인 97형 올레드 에보 갤러리에 디전을 출시했다.

LG전자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부터 미국 텍사스주 달러스에서 사흘간 열린 영상대전 전시회 CEDIA 엑스포 2022에 참가해 97형 올레드를 첫 공개

했다고 밝혔다.

97형 올레드 TV는 4K 해상도로 가장 큰 화면 크기를 자랑으로 한다. 5세대 인공지능 알파9 프로세서를 조합해 화질과 음질 품질도 높였다. 돌비의 돌비비전 IQ와 음향기술 돌비메트모스도 지원한다.

LG전자는 전시 기간 현지 프리미엄 유통업체 스타파워(Starpower)의 플

래그십 스토어에서 LG 시그니처의 엠버서더이자 유명 아티스트인 존 레전드(John Legend)와 함께 LG 시그니처 혁신 기술과 예술적 가치를 알리는 행사도 마련했다. 존 레전드는 롤러볼 올레드 TV 등 자신이 사용중인 LG 시그니처 제품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LG 시그니처의 차별화된 가치를 소개했다.

LG전자는 할로윈데이와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형 쇼핑 시즌을 맞아 현지 프리미엄 TV 수요를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웅 기자

아이폰 카카오톡 이모티콘 가격 오른다

애플 인앱결제 인상 영향

아이폰 카카오톡 이모티콘 가격이 20% 인상된다. 3일 카카오톡은 ‘애플 정책 변경에 따른 이모티콘 가격 조정’에 대한 안내를 공지했다.

카카오 이모티콘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100초코는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초코는 2500원에서 3000원,

300초코는 3900원에서 4400원으로 오른다. 초코는 카카오 이모티콘 결제시 필요한 디지털 화폐 단위다.

카카오는 이번 이모티콘 인상 조치가 지난 19일 애플이 일부 국가 대상으로 인앱 상품 가격 인상 공지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격 인상은 오는 6일부터 애플의 작업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